



###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 “매월 1일은 콘돔데이입니다” 홍보캠페인 실시

사단법인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회장 김난희)는 매월 1일을 Condom Day 로 지정하기로 하고, 오는 6월 1일 대구광역시청 앞에서 첫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대구 시민 대상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콘돔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어 콘돔 사용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에이즈예방 능력을 고양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함에 따라 대구의 외국인 관광객들의 유입과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서의 대구의 이미지 밸류(image Value)를 높이기 위함이다.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에이즈 발생률이 증가된 것으로 예상됨으로 에이즈예방 대책 수립이 시급. 이에 따른 대서민 홍보로 콘돔데이를 지정하게 되었다. 에이즈는 니 이상 불치병이 아닌 만성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감염위험에 대한 편견과 처벌은 매우 심각하여 편견치명해소를 위해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1997년 이후로 에이즈 치료제가 획기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감염인의 수명도 연장하여 조기발견을 하민 평생 수명이

연장가능하게 되었음. 이에 소기발견을 위한 에이즈 시범적 검사기 매우 요청되므로 시민들 내상 감시 홍보를 함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07. 5. 30〉

### ‘PD수첩’ 한국에 푸른도는 없다, 에이즈 여전히 편견

최근 인기리에 방송된 MBC 드라마 ‘고맙습니다’ 이후 에이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사리하게 됐다. 극중 에이즈에 감염된 몸이 가족을 끌어안아주는 푸른도 주인공의 모습은 감동은 물론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편견을 깨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렇다면 ‘고맙습니다’의 푸른도, 주인공과 같은 이웃들이 우리 현실에도 존재하고 있을까.

의학의 발달로 이제 불치병이 아닌 만성질환으로 분류되는 에이즈. 하지만 실제 에이즈환자와 HIV감염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히 크고 묵함적이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국내 에이즈 환자들의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인에 비해 10배나 높은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 29일 오후 11시 15분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에이즈 환자들에게 ‘고맙지만은 않은’ 한국의 현실을 심층



### 潘 총장 “내 조국을 포함해 HIV 감염인 편견 부끄러워”

HIV감염 유엔 직원들과 면담 후 반기문(潘基文) 유엔 사무총장은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유엔 직원들을 만나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차별을 개탄하며, HIV 감염인들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부당한 대우를 바로 잡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다음 아시아 지역 방문 때 에이즈 의료시설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 총장의 미셸 몽타스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반 총장이 전 세계의 유엔 직원들 가운데 HIV 감염인들을 면담한 후 자신이 그동안 대통령, 국왕, 외교관 등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 면담이야말로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가슴 뭉클한 경험중 하나”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엔의 브리핑 녹취록에 따르면, 반 총장은 HIV 감염 유엔 직원들의 용기와 자신들의 삶에 대한 진솔한 얘기들에 감동 받았다고 말하고, 그러나 “자신의 조국인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등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HIV 감염인들이 직면한 차별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덧붙였다”고 몽타스 대변인은 전했다.

반 총장은 21일 유엔총회의 HIV/에이즈선언 이행점검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자신의 책임중 에이즈 문제를 유엔 차원에서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7. 5. 23〉



취재, 해외 사례와 비교해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식의 개선  
을 모색했다.

## # 감염인도 행복한 나라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 제작진이 만난 12살 브랜다. 어린 동생이 시  
령스러워 연신 입을 맞추고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수영을 하  
는 건강한 모습의 브랜다는 HIV에 감염된 채로 태어난 에이  
즈 감염인이다. 브랜나의 꿈은 좋은 엄마가 되는 것, 그리고  
자신과 같은 에이즈 환자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한다. 지금처  
럼 국가에서 지원하는 좋은 약을 꾸준히 복용한다면 브랜다  
의 꿈은 그리 먼 게 아니다.

제작진이 만난 또 다른 감염인 프랭크. 그가 14년이란 시  
간동안 감염인으로 살아오면서 시은 회사의 CEO로, 싸이클  
링 농호회의 일원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비  
록 가족과 친구들의 시지가 있었기 때문. 아년 그가 한국의  
감염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의 HIV 감염인 여러분, HIV에 감염됐다고 해서 세계  
종말이 아니에요. 이 방으로 인해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됐습니  
다. 아직 긴 시간을 살 수 있는데 주변에 좋은 친구를 보으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뉴스엔 2007. 5. 28)

## AIDS를 양지로...자살 예방 프로그램 시급

에이즈 감염인의 자살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시  
민 홍보활동은 물론 에이즈 관련 상담전문가 양성, 취약 확충 등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지역 병원 성신과 및 감염내과 전문의에 따르면 1997  
년 이후 에이즈 치료제가 획기적으로 개발돼 조기 발견하  
면 평생 수명연장도 가능하게 됐지만 에이즈 감염인 대부분  
이 사회적 격리에 따른 우울증 증상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  
치료보다 자살을 더 고민한다는 것.

실제 한 에이즈 감염인은 "처음 에이즈 감염 양성반응평  
정 을 받고 사삼을 먼저 생각했"며 "상담을 받고난 뒤 다수 미  
음이 편안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에이즈 감염인 수용시설과 상담가는 턱없이 부족  
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에이즈 감염인 수용시설은 7개 정도  
이고, 상담가도 20여명에 불과하다. 대구·경북지역에는 수  
용시설이 단 1군데 밖에 없다. 상담가는 고작 3명이다.

에이즈 전문상담가들은 상담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열게 하

고, 자발적으로 에이즈 검사를 받게 해야 추가 약물치료 능  
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 D병원 성신과 전문의는 "에이즈는 사회 정서상 쉽게  
노출시킬 수 없는 질환으로 생각해 우울증으로 발전한다"며  
"감염인능어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심터 및 상담시설이 많  
이 마련돼야 하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광고도 상시  
로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에이즈 관련 공익광고는 해  
마다 11월 한 달 동안만 하고 있다.

에이즈 관련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K병원 관계자는 "약,  
당뇨 질환처럼 에이즈와 관련된 선문장외의 수시개최도 필요  
하다"며 "치료에 앞서 같은 심환을 앓고 있는 동료들과의 커  
뮤니티를 형성하는 것도 에이즈 감염인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에이즈 감염으로 자살한 사람의 경우 가  
족들이 시신도 포기하고 있고, 일부 병원에서 감염 우려 및  
위래 환자들의 시신을 의식해 외면하는 실정"이라며 "에이즈  
실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교류가 무엇보다 중요"나  
고 덧붙였다.

(구키뉴스 2007. 5. 5)

## 美 애보트 제약사 에이즈 치료제 가격 대폭 인하

높은 약값등으로 국제적인 비난공세에 직면해온 미국의  
애보트 제약사가 10일 비공공체에 대해 자사의 에이즈 치료  
약값을 대폭 할인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애보트사는 이날 중저개발국들에  
한해 자사의 에이즈 시료약인 '칼레트라' 의 판매가를 절반이  
상 인하,환자당 연 1천 달러수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약가는 칼레트라 복제약가보다도 싼 것이다.

애보트사는 최근 태국정부가 자국내 신약 특허 파기 결  
정을 내린데 대해 대국내 신약 출시를 중단시켰으며 이로 인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아왔다.

애보트사는 그러나 태국정부의 특허 파기 문구는 아직  
계속중이라면서 칼레트라와 신환인 '알루비' 의 대국내 시  
판은 계속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키고에 본사를 둔 애보트사는 지난 수년간 자사의 에이  
즈 치료제 약가를 지나치게 인상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아왔  
다. 2003년의 경우 또다른 에이즈 치료제인 '노르비르' 의  
가격을 400%나 인상시켜 각국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연합뉴스 2007. 4. 11)